

한국에 있어서의 이슬람 문화

성신여대 전 상운

한국과 이슬람 문화의 접촉 및 교류는 7세기경 신라에서 시작된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몇 가지 기록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신라에 들어 온 무역품이 기록되어 있다. 7~8세기경의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암 궁전 벽화의 사절단 그림에는 배에 탄 신라인이 어느 사절보다도 당당하고 화려하게 그려져 있다. 신라의 사절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중앙 아시아까지 진출한 것이다. 또 846년경 후르다비(ibn Khurda-dbih)가 쓴 「여러 도로들과 여러 왕국들에 대한 책」에는 중국 저쪽에 신라(al-shili 또는 Shila)섬이 있다고 하고 신라의 지리와 통치자 및 그 특산물과 이슬람 상인들의 교역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또 신라의 중 해초는 그의 여행기 「왕오천축국전」에 아라비아인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신라 출신의 무장으로 당에서 750년대에 용맹을 떨쳤던 高仙芝는 서투르키스탄에 원정했고,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서 압바스 왕조의 군대와 교전했다.

신라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유리 제품도 이슬람 문화와의 교류를 말해주는 자료들이다. 고구려와 백제와는 달리 고신라와 통일신라의 고분에서는 로만 글라스와 페르시아 유리 제품이 여러점 발굴되고 있다. 그리고 신라의 유리 기술은 중국의 유리 기술이 아닌 다른 계통의 기술임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다.

신라의 금관은 신라인의 창조적 디자인이지만, 그것은 서아시아 왕관의 계통과 이어지고 있다는 설이 있다. 1978년부터 아프카니스탄 '황금의 언덕' 평원지역의 기원전 1세기경의 무덤에서 발굴된 금관과 곡옥들은 이 지역과 한반도와의 교류를 강하게 시사하는 유물로 주목되

고 있다. 그것은 이른바 북방 루트에 의한 교류를 생각케도 해주고 있다.

신라에는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10~14세기)에도 이슬람 문명과의 교류는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海路를 통한 무역이 활발했다. 전기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배로 開京의 해상 문호인 예성항까지 왔다. 「고려사」에는 그에 대한 공식 기록들이 짙막하지만 여러번 나타났다.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물품들은 수은·향료·약품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슬람 과학기술과 관련된 서적이나 기기들이 있었는지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으나, 한번에 100여명이 왔다고 하니 적지 않은 문물의 교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이 시기에 고려인들이 송나라와 활발하게 무역하고 있었으므로, 송을 통한 이슬람 문명과의 교류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별로 없다. 「고려사」에는 고려에 온 아랍인의 모습을 비교적 잘 기술하고 있으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리나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쓰고 있지 않다. 다만, 늦어도 고려시대에는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되는 조선시대의 바퀴모양 지도인 여러 天下總圖에 西域의 나라로 이슬람 세계가 중국 다음으로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은, 고려에 대한 이슬람 문명의 영향을 시사하는 하나의 자료로 여겨도 좋을 것 같다.

고려 중기 이후, 중국에 원왕조가 성립하면서 이슬람 문명과의 교류는 원나라를 중개지로 하여 전개되었다. 고려 왕실이 원의 帝室과 맺어진 혈연관계로 인해서 많은 고려 왕족이 북경에서 살았다. 여기서 원왕조에서 일하던 이슬람 학자들과 기술자들과의 교류를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슬람 나라들의 약물들과 포도주가 원나라를 통해서 고려에 들어오고, 아라기주라고 불리는 소주가 소주고리로 종류되어 만들어져서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러나 학문적인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나, 고려에 직접 들어온 이슬람 상인들에 대한 기록

은 오히려 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고려 말까지 이슬람 문화는 한국 문화 속에 여러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한국 속에 정착되고 있었다.

조선 초, 1402년에 제작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것은 그때까지 중국에서 그려진 어떤 세계지도보다도 중국 서쪽의 여러 나라들이 잘 그려져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선 학자들이 이슬람 지도학의 성과를 제대로 받아들여 가장 훌륭한 세계지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거기에는 고려시대까지 축적된 이슬람 문화와의 교류가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 과학의 영향은 세종 때의 천문학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세종 14년(1432)부터 착수된 여러 천문 관측기기의 제작에서 「세종실록」의 공식 기록에 「元史」의 郭守敬의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기술된 기기들이 그것이다. 간의와 앙부일구가 그렇고, 장영실의 자격루와 옥루에서도 이슬람 자동물시계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순지와 김담이 세종 24년(1442)에 편찬한 「七政算外篇」은 回回曆, 즉 이슬람 역법을 바탕으로 편찬한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슬람 천문서의 한 漢譯本으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순지와 김담이 이슬람 천문서의 원전에 직접 접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은 이슬람 천문학의 계산을 조선의 천문학에 받아들이고 있다. 세종 때의 천문학자들은 이슬람 천문학을 통해서 그들의 이론 속에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체계를 중심으로 한 이론도 도입하고 있다.

조선 초의 학자 설장수와 그의 동생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에 참여한 설경수는 고려 때 원에서 고관으로 일하다가 들어와 귀화한 이슬람(위구르)인의 아들이며, 세종 때의 과학자 장영실은 그 아버지가 원에서 귀화한 사람이다. 그들이 回回天文臺와 어떤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고려 말에 귀화한 아라비아인으

로 왕실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집안에서 아라비아 문헌의 도입과 해독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슬람 과학의 영향이 조선 초기의 활발한 과학기술의 전개를 한단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아직 가능하기 어렵다. 고려와 조선 초기에 있어서의 이슬람 과학의 영향은 중국에 비해서 훨씬 제한되어 있었고 단편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5세기 초에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에 자리잡은 조선에서 그 융성했던 이슬람 과학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일이다.

15세기 전반기의 조선 과학은 그 시기에 있었던 다른 모든 지역의 과학기술의 성과를 훨씬 능가하는 양과 질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아랍 세계의 그 찬란했던 과학의 발전도 14세기에는 이미 그 빛을 잃고 있었고 서방 라틴 세계의 문화의 빛은 아직 희미했었다. 15세기 조선 과학은 이런 시기에 가장 찬란하게 開花한 것이다.

그것은 이슬람 과학과 서유럽의 근대 과학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워주는 작으면서도 창조적인 동아시아 과학의 성과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오랜 과학 문명의 전통과 이슬람 과학 문명이 조선에서 융용되어 한국의 과학으로 창조된 것은 15세기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표 1〉 기술의 카테고리화

구 분	실 례	조직적 특징	기술상의 특색	대두의 시기
전통기술	건축(건물, 다리, 수도 등), 무기, 선박, 섬유, 야금	길드적 기반(폐쇄성, 비교성, 도제성)	천천히 발전, 또는 정제, 소규모의 상업과 결합	
근대기술 (전통 기술의 연장)	건축, 무기, 선박, 섬유, 야금(제철), 증기기관	길드로부터의 진출조(職人的) 전문기술교육(기술학의 탄생, 체계적 교육)	전통기술의 체계화, 수학적 제도의 이용, 경험의 축적에 의한 갑작스런 비약, 산업(자본)과의 결합	산업혁명기(제2의 과학혁명)
과학적 기술(신규기술)	유기화학(합성 염료), 전기화학, 전기, 전자	전문과학교육 전문기술교육 대학의 정착 기업연구소	과학과 기술의 결합, 과학에 의한 기술대상의 창출(예를 들면 전류), 독점적인 산업자본과의 결합(거대장치)	19세기 중엽(제3의 과학혁명)
첨단기술	초전도, 신소재, 바이오(생물학)			

(그림) 파이엔슨에 의한 文化帝國主義의 3개의 축

